마음의 강제이주를 통해 이루는 인내

(약1:1~11)

1.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4.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6.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8.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마음의 강제이주를 통해 이루는 인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마음의 강제이주를 통해 이루는 인내'

야고보서는,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었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근데 제자 중에서의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는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 장로라고 하는 분이 이분인데, 그 예수님의 동생이신 야고보 장로가 쓰신 책입니다.
학자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49년의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으로 46년에서 49년에 쓴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또 누구를 향해서 쓴 서신이냐 하면, 로마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서 기독교로 갓 개종한 신자들을 향하여 쓴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가 이제 막 기독교로 전향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기존의 동족 유대인들이 아주 민

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시련이 주어질 것을 염두에 두고 쓴 편지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러한 편지의 서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기독교인이 됨으로써 시련을 당하게 되는데, 아직 로마제국의 방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주어지는데, 이렇게 시련을 당하게 되면 온전히 기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시련이 너희들에게 인내를 이루어줄 것이니까, 이거 참 말이 특이해요.
'시련이 주어졌으니까 그 시련을 잘 참는 인내의 힘을 발동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이 인내를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어법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기껏 시련을 맞이해 고통을 대가로 치르면서 얻게 되는 게 인내라는 겁니다.
아, 이거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어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다음의 달달한 열매의 결과지, 인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고보 장로가 쓰는 것은, 시련이 주어지면 기뻐하라, 왜냐하면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어주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게 참 특이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독교에서 인내라고 말할 때 그 인내가 무엇인지를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도바울도 로마서 5장에서, 환란이 우리에게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같은 인내를 얘기하지만 조금 겉으로 보기에는 달라요.
이 야고보 장로가 말하는 인내를 우리가 계기로 삼아서 기독교의 인내를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인내는 세상의 다양한 국면에서 적용되고 있는 인내와는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죽을까봐 두려워서 저항하지 못하고 참고 지내는 그런 인내가 있습니다.
두려워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견디는 인내.
그리고 이 세상에서 볕들 날 올 것을 기다리면서 하는 인내, 잘 살게 될 날이 올 거야, 건강해질 날이 올 거야, 우리 자식들에게 형통할 날이 올 거야, 이런 종류의 인내.
또, 궁도령 소리를 들어가며 온갖 치욕을 다 당하면서 독수리 발톱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대원군의 인내.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른 걸로는, 와신상담하면서 오뚝이처럼 재기를 기다리는 인내.

전쟁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와신상담합니다, 쓴 쓸개를 먹고 장작 위에서 자면서 재기를 기다리는, 이건 대원군의 인내와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 예를 들어 내 가족이나 재산 이런 걸 지키기 위해서 치욕과 굴욕을 당하면서 그나마 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내주는 인내.
이렇게 여러 가지 인내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인내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인내를 이루라' 인내가 목적이에요, 시련을 견뎌내는 목적이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에요.
요 인내가 대체 뭐냐? 라는 얘기죠.
자, 예수를 믿는 신앙인의 삶에 알파요 오메가의 포인트는 십자가생활화입니다.
시작점도 십자가생활화고 끝나는 점도 십자가생활화입니다, 시작이고 마지막이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십자가생활화가 뭐지요?
우리 마음을 잡아끌려고 하는 모든 삶의 대상들이 생길 때마다, 그게 사람이라도 좋고 사건이라도 좋고 물건이라도 좋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어쨌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첫 번째 해야 될 사명이자 과제는 마음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뺏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대상에 대해서 죽어버리면서 우리 마음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을 드립니다.
이 일을 하루에도 열 번 스무 번 백 번씩 반복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또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보이는 것들을 상대하기 위해 마음이 끌려가는 상태가 일단은 끊겨져야 돼요.

이렇게 해서 마음이 하늘로 자꾸 올라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자꾸 만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의 데이트 시간이 늘어나고, 하나님과 정이 들고 하나님을 마음이 더 많이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하늘의 맛을 알고 승천하신 주님의 맛을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점점 깊이 느끼고 점점 깊이 정이 들어갑니다.
이럴 때 결국은 우리 마음이 완전히 하늘을 좋아하게 되고, 하나님과 승천해 계신 주님을 좋아하게 되면서 우리 마음이 이 땅에서 어느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은 채, 다 몽땅 하늘로 올라가버려요.
근데 마음은 하늘로 올라갔는데,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올라간 하늘과 몸이 놓인 땅의 차이에서 인내라는 말이 드디어 발생합니다.

사도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이라도 이 몸을 떠나서…’ 곧, 죽어서 하늘에 계신 주님과 함께 머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어느 시련이 오는 시점에 발동되어질 신앙의 덕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그랬어요, 4절에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려…’
근데 이렇게 믿음이 온전해지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믿음이 되게 되면, 기독교인의 삶은 삶 전체가 인내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십자가생활화를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 있고, 하늘로 올라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이라도 몸을 떠나 아버지께 가고 싶다, 라고 하는 사도바울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데, 하나님 뜻이 아니라서 몸이 이 땅에 아직 살아있으므로, 가고 싶은 하늘과 몸이 있는 땅의 차이를 인내로 극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가고 싶은 곳은 거긴데, 지금 하나님 뜻 때문에 여기 묶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는 어느 한 순간에 발동되는 신앙의 덕목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에 가장 두드러진 특성 중 하나라는 거예요, 지속적인 특성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졌고 십자가생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장로가 오늘 인내를 이루라는 그 인내가 바로 이런 인내를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마음이 하늘로 다 드려져 있고 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상태, 이 상태에서는 인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건 하늘인데 못 가고 있으니까.
이 인내를 이루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평범하게 일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런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인내의 상태가 잘 안 됩니다.
인내로 살아가려면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늘로 가고 싶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세상의 삶을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인내로 사는 게 아니라 의욕적으로 살고 있어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이라서 이 땅에 묶여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이 좋아서 애착을 갖고 착 달라붙어갖고 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갖 거룩을 다 떨고 있지만, 온갖 율법을 다 지켜가면서 구분된 자로서 자아의식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이 세상 것이에요, 세상의 명예와 돈이었습니다.

구분되어졌다는 것에서 명예를 얻고 그들이 진짜 마음의 만족을 얻었던 게 돈이라는 거예요.
뱀이 배를 땅에 딱 붙이고 기어 다니는 것처럼 마음의 배를 땅에 붙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선민들의 마음과 땅이 붙인 사이에 뭔가를 찔러 넣어서 떼어내야 되잖아요?
이 떼어내는 칼, 하나님께서 선민들의 마음을 이 세상에서 떼어내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것들이 이 땅의 삶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이 이 땅에 붙어서 이 땅의 것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시련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붙잡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시련이랄 것도 없어요.
잃을 게 없는데 시련이 어디 있습니까?
내 몸까지도 붙잡고 있지 않아요, 단지 주어지는 것이 몸의 고통일 때는 생물학적 차원에서 그 고통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마음이 괴롭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 카타콤에 들어가서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마음이 하늘로 다 옮겨갔기 때문에 지상에서 벌여놓았던 모든 인생의 결과물들을 다 상실하고도 상실한 게 없습니다.
쉽게 말해 오리지널 순교가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원래 하늘나라를 가고 싶어 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인내가 지속되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경우에 시련이 시련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강제로 하늘로 이주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이래도 너희가 마음을 이 땅에 둘 거야? 정말 마음을 하늘로 옮기지 않을 거야?'
온전하게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구비한다는 말은 전체를 나타내는 단어와 부분을 나타내는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뜻입니까? 마음의 부분 부분을 봐도, '홀로 클레이'라고 하는 말인데 마음의 부분 부분을 봐도 다 이 땅에 안 남아있고 하늘로 올라갔고, 전체적으로 봐도 다 하늘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 상태를 이루도록 시련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련이 다가오면 얼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마음을 붙이고 있기 때문에 이토록 괴롭구나, 우리가 재산을 상실할 수 있고 갖고 있던 것을 잃을 수도 있지만, 이게 마음에 고통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내 마음은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었고, 하늘로 다 옮겨져 갔어야 되는 것이다, 십자가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였는데, 그게 믿음인데, 우리가 그걸 못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련이 주어지건 안 주어지건 외부적인 환란과 박해나 핍박이 주어지건 안 주어지건, 기독교인의 삶은 인내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늘로 가고 싶은데 지금 못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인내를 이루라는 겁니다.
그 인내를 이루는데 왜 기뻐해요? 그게 뭐 별것도 아니잖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덕목이 궁극적인 의미에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말해 마음이 완전히 하늘로 다 옮겨지게 되면, 이건 뭐 불사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불사조가 된다는 것은 이 땅을 날아다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듯이 이 세상 바다에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걷는다는 얘기를 뜻하는 겁니다.
이 인내의 상태에서 주님께서 주셨던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완전히 하늘로 올라갔을 때.
그러니까 시련이 다가오면 기뻐할 것은,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나님께서 강제이주를 시키시는 거니까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 시련을 짧게 끝내려면, 아니면 외부적인 시련이 지속되더라도 마음에서 느끼는 고통이 짧아지려면 얼른 자발적으로 십자가에 가서 십자가를 붙들라 이겁니다.
자발적으로 마음이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로 드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을 날아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에도 묶이거나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인내를 이루라는 말을 한 거예요.
시련이 오면 시련을 맞아서 인내하라는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시련이 인내를 이루어준다, 이렇게 말을 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본래적인 의미에서의 인내, 마음을 다 하나님께 두고 몸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상태의 인내, 절대로 몸에 의해서 이 땅으로 마음이 빠져 들어가지 않는, 이 땅에 대해서 날아다닐 수 있는 그런 평강의 인내, 평강의 날개를 다는 거죠.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거고, 그러면 갑자기 지혜의 얘기가 왜 나올까요?
지혜!
자, 보세요, 여러분!
이제 마음이 다 하늘로 올라가버리고 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뜻이 생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욕이 없으니까.
아니,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서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승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늘에 머물러 사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래버리면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게 없는데

무슨 내 뜻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몸이 아직 있어서 하나님 뜻에 의해 몸이 살아있으면서 행해야 될 모든 것들은 내가 무엇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뜻을 갖고 움직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뜻이라야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움직이고 싶지도 않아요.
강제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뜻을 행해라, 라는 명령을 의식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이루고 싶은 게 없기 때문에 내 뜻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천상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허락하시는 공개되어진 하나님의 뜻이 성경입니다.
야고보서를 받아들고 읽었던 그 당시 유대인들로서 갓 개종한 기독교인들보다 우리가 유리한 것은, 우리에게는 신약성경까지 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다양한 삶의 국면과 경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에서 채 발견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들을 기억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때 삶에서 내가 당한 나의 삶의 특수성 안에서 나만 행해야 되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경을 통해 나타났고, 그리고 나의 삶의 특수성 때문에 나만 행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를 구하면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와 연결이 돼서 나오는 거죠.
인내와 지혜는 어떻게 보면 서로 연관성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철두철미하게 연관돼있다는 거예요.
인내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반드시 지혜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씀하는 율법이라든지 계명, 이런 것들은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서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근데 나만의 삶에서 지켜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앞의 지혜를 구하라는 말을 다 떼놓고, 이 야고보서 1장 6절만 인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돼요.
내가 '사업이 잘되게 해주세요!' 하고 구해놓고 하나님이 사업이 잘되게 해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내의 상태를 전제하고 하는 말인 것을 기억해야 되요.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있고 몸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로 가는 게 소원인 상태에서 지혜를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는 얘기에요.
여기서 의심이라는 얘기가 '디아크리노'라는 단어인데, '디아'는 사이를 말하고 '크리노'는 분리시킨다, 잘라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잘라서 사이가 벌어지게 하는 것이 의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심이 뭘까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것을 말해요.

자, 사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라는 과제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때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갑니다, 은행 지점장을 찾아갑니다.
이게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주어지고 어떤 경우가 내 삶에 닥치더라도 우리 인내를 이룬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뜻을 따라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 하나의 줄을 이어가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말과 행동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깁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다가 '어, 이거 이렇게만 해도 될까? 그래도 이 세상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 문제의 분야에 해당되는 책을 갖다 읽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닐까?' 이게 두 마음을 품은 것이고, 의심이 생긴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느 어느 지점장을 찾아가라고 지시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떠어떠한 책을 집어서 펴보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하실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은 그것을 이용하는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이용하라는 얘기에요, 마음이 곧바로 그리로 달려가지 말고.
그러면 벌써 인내가 깨어져버립니다, 마음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내 마음 사이가 벌어져버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시련이 확률적으로 적게 오도록 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십자가생활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많은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 마음을 붙이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 마음을 강제이주 시키려고 시련을 주시는 거니까, 이런 환란을 안 당하려면 확률을 줄이려면, 어떡하든지 십자가생활화를 잊지 말고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시련이 안 주어지고도 인내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인내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시련이 주어져도 시련으로서의 고통의 농도가 완전히 희석돼버리고 맙니다, 고통이랄 게 특별히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첫 장에 바로, 마음을 강제이주 시키기 위해서 주어지는 시련은 기뻐해야 될 일이다, 왜냐하면 인내를 이루니까.
이 세상을 날아다닐 수 있는 평강의 날개를 다는 인내라는 덕목을 우리에게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제이주를 실시하신 것이니 기뻐해라.
그리고 그렇게 인내를 이룬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나만의 특별한 삶의 케이스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할까는 하나님께서 무궁히 내려주실 테니까, 하나님께 다 답이 있음을 믿고 쓸데없이 이 세상 여기저기 바람에 나는 겨처럼 돌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해야 할 말과 행동을 반드시 우리에게 가르쳐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낮은 형제 높은 형제, 돈 문제 얘기한 것은 이 땅에서 돈 같은 것 때문에 마음을 붙임으로써 하나님의 강제이주의 역사가 자주 오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를 생활화함으로써 강제이주를 목적으로 하는 시련과 환란의 확률이 줄어들게 하시며, 혹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꼭 필요해서 주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고통의 감도가 줄어드는, 그리하여 평강의 날개를 달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